

지역 매 아리

김제 선암 자연휴양림 조성

제21회 김제지평선축제서
지평선 파크콘서트 개최

대한민국 글로벌축제 제21회 김제지평선축제가 주요 공연으로 벽골제 상륙광장 특설무대에서 지평선 파크콘서트를 준비했다.

올해 처음으로 펼쳐지는 파크콘서트는 9월 28일~10월 2일 및 10월 4일에 펼쳐지며 의자를 설치하는 대신 돛자리를 깔아 소풍 온 듯한 느낌으로 관광객들이 편하게 공연을 즐기도록 기획했다.

라인업으로 28일에 이수영, 고나밴드를 시작으로 29일 장재민, 토리밴드 / 30일 아토(퓨전국악), 엉망진창 / 1일 율향, 장군진영 / 2일 최성수, 마로니에 / 4일 로맨틱펀치, 악동까지 다양한 장르의 가수들이 참여한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올해 선보이는 파크콘서트를 신경 써서 준비했다. 주간에는 체험프로그램을 즐기고 야간에는 파크콘서트에서 여유로운 가을밤의 정취를 느껴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로컬푸드에서
푸드플랜으로 확대 '탄력'

완주군이 푸드플랜 선도지자체로 선정된 후 지역푸드플랜 확산의 마중물이 될 농산물산지유통지원사업에도 선정되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고 있다.

17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역푸드플랜은 먹거리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로컬순환시스템을 통해 지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도농상생, 지속가능한 먹거리 산업을 도모하는 지역 단위의 먹거리 종합전략이다. 푸드플랜 선도지자체인 완주군은 현재 6개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공모예정이다.

이번에 완주군은 농식품부 농산물산지유통지원사업에서 국비 18억원을 확보하면서 푸드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신축될 푸드통합지원센터는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이다.

푸드통합지원센터 신축으로 기존 공공급식지원센터의 공급영역 확대에 인한 농산물 처리물량의 한계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 먹거리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운영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박성일 완주군수는 농산물산지유통지원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농식품부 등을 연달아 찾아 농산물산지유통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대응을 펼치기도 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시, 2022년까지 110억원 투입...산림치유공간 및 관광인프라 구축

김제 시민의 숙원 사업인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현실에 맞게 지정 신청해 산림청으로부터 변경 고시됐다.

새롭게 지정된 김제 선암 자연휴양림은 금구면 당월저수지 일원 사유림 등 36ha에 2022년까지 110억원을 투입해 조성할 계획이다.

자연휴양림은 민선 7기 중점 현안 사업으로 전북 서부 평야권에 최초로 조성되는 사례로 지역 경제 발전과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산림휴양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추진했으며 이에 따라 2018년 10월 전북도의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거쳐 올해 2월 사전입지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전북도에 자연휴양림 지정 신청했다.



산림청에서 9월 3일 최종적으로 김제 선암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했다.

이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현지 조사 및 타당성 평가를 시행하였고 자연환경보전과 관련하여 환경부 등의 협의를 거쳐 산림청에서 9월 3일 최종적으로 김제 선암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했다.

김제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자문단을 구성하였고, 김제시만의 특성을 살려 숲과의 만남, 산림치유, 레저기능 등을 도입하여 특화된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자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했다.

주요 시설계획은 모든 계층의 이용객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과도한 훼손을 지양하고 효율적인 공간 구성으로 하늘맞이, 하늘품은, 하늘달림, 하늘오름 4가지 테마로 구성할 계획이다.

하늘맞이는 이용객에게 서비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제공하는 편익공간으로, 하늘품은은 현대인의 지친 심신을 위해 여유를 누리는 휴식공간으로, 하늘달림은 숲이 주는 싱그러

움과 즐거움을 찾는 놀이공간으로, 하늘오름은 힐링길을 걸으며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산림치유공간으로 조성한다.

또한 전주시 도심권 및 혁신도시 등 대도시에서 약15분 거리로 접근성이 우수하며, 호남4경인 모악산, 금산사와 휴식공간인 대월저수지, 모악산마실길, 금평결길 등이 인접하고 있어 산림휴양권역으로 연계해 획기적인 김제시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치매극복선도단체 '김제시립도서관' 선정

김제시보건소, 현판전달식 가져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17일 김제시립도서관을 치매극복 선도도서관으로 선정하고 현판전달식을 가졌다. 치매극복 선도단체란 치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가정과 사회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체를 말한다.

김제시립도서관은 제1호 치매극복선도도서관으로 선정됐으며, 치매안심센터에서 추진하는 치매관련도서와 간행물, 홍보물 등을 비치해 도서관을 방문하는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치매예방 및 치매극복과 관련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극복선도도서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김제시 치매안심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치매파트너교육과 치매도서코너를 마련하면 지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김제시립도서관 송운섭 관장은 "김제시 치매안심센터와 함께 지역주민이 신뢰하고 접근이 용이한 정보를 제공하여 치매극복과 치매인식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생강활용 베이커리 3종 출시

완주군의 대표 특산물인 생강을 활용한 베이커리 3종이 출시된다.

17일 완주군은 향토건강식품명품화 사업으로 생강을 활용한 '진저원' 브랜드 베이커리 상품인 생강카스텔라, 밀크 생강캐러멜, 생강달고나를 개발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한 생강 베이커리류 3종은 맛, 가격, 대중적 기호도 모두를 잡기 위해 여러 차례의 시식회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탄생했다.

정재운 먹거리정책과장은 "개발 과정에서 생강의 매운맛에 대한 기호 차이가 너무 커서 표준화된 배합비를 결정하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며 "여러 실험 끝에 최고의 배합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주력 제품인 '진저원' 달콤한 생강 카스텔라는 완주군 생강과 국내산 쌀 등을 혼합했으며, 생강의 알싸함에 달달한 맛, 쌀의 쫄

득한 맛이 특징이다. '진저원 밀크 생강캐러멜', '진저원 생강달고나'는 기존의 캐러멜, 달고나에 생강진액, 생강가루 등을 혼합한 것이다. 중장년층에게 달고나의 추억을 선사하며, 건강 한 생강의 맛을 느끼도록 하면서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고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이다. 생강 카스텔라는 9월 초에, 생강 캐러멜, 생강 달고나 선물세트는 2019년 완주와일드푸드축제에 맞추어 출시, 생산돼 시범적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현대자동차 전북본부가 실시하는 '2019 쏘나타 하이브리드 연비왕 선발대회'가 오는 30일까지 일정 구간을 주행한 뒤 실제 연비 기록을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쏘나타 하이브리드 연비왕 선발대회 '인기'

현대차 전북본부, 공인 복합연비 20.1km
16일 현재 최고연비 45.4km 등 기록

현대자동차 전북본부(본부장 신종호)가 친환경차 붐 조성을 위해 진행 중인 2019 쏘나타 하이브리드 연비왕 선발대회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친환경차에 관심 많은 전북도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한 달 간 실시되는 이번 대회는 참가자가 일정 구간을 주행한 뒤 실측 연비 기록을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회 시작 19일째를 맞은 16일 현재 안원모(45세, 남, 전주시 송천동) 씨가 45.4km 연비 기록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중이며, 박소영(32세, 여, 전주시 송천동) 씨와 임규성(52세, 남, 전주시 서신동) 씨가 각각 40.6km와 38.8km 기록으로 그 뒤를 쫓고 있다.

대회 참가 후 참가자들은 "복합

연비가 20.1km라고 들었는데 실제 연비 나오는 거 보고 정말 깜놀. 쏘나타 하이브리드 연비 쟁!", "36.2km 대박! 쏘나타 하이브리드 탈만 하고만" 등의 시승 후기를 남기며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다.

2019 쏘나타 하이브리드 연비왕 선발대회 참가 희망자는 오는 30일까지 전화(063-282-7365) 또는 전주시 만성동 소재 전주시승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누구라도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 전북본부는 쏘나타 하이브리드 연비왕 선발대회 참가자 전원에게 모바일 커피상품권 등 선물을 증정하고 있으며, 대회 결과 최고의 연비를 기록한 상위 랭커 10명에게는 모바일 주유상품권을 포상할 계획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선민영 전북대 기계설계공학과 교수 지평선아카데미에 초청

제596회 김제지평선아카데미는 전북대 기계설계공학과 선민영 교수를 초청하여 오는 19일 오후 3시 김제시청 지하대강당에서 '국내·외 신재생에너지(해양에너지중심)정책 및 김제시의 미래전략'이라는 주제로 지평선아카데미 강연을 펼친다.정부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대한 김제시의 주도적 역할을 제안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는 선진국형·미래에너지라는 인식을 통해 김제가 이 시대의 미래준비지역임을 홍보하고, 향후 지역주민의 고용과 경제활성화의 여건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해양대 기관학과 학사 및 전북대 대학원 토목환경공학/에너지공학과 석·박사를 졸업한 선민영 교수는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책임연구원, 호남광역권 선도전략산업 R&D기획위원장, 전북도청 조선/해양분야과학기술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전라북도지사 SOC분야 지역발전공헌 표창 및 전라북도지사 조선·해양분야 R&D과제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는 (사)새만금해양레저협회 사무총장 및 전북대 차세대공력발전센터장, 해양발전플랫폼 연구소장으로 도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이 날은 청하면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지평선아카데미 체험의 날'로 청하면 소개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인 청하면 체조교실과 검산동의 윈댄스의 댄스공연은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강연분위기를 한층 돋을 것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